

목포권

병어·참조기·낙지 양식 새 소득원

병어와 참조기, 낙지 등 양식이 불가능했던 어종에 대한 인공종묘 재배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같은 양식어종 다변화는 특...

목포수산사무소, 병어 치어 1만 2천마리 방류
고등어도 대량 양식 성공...서남권 수산업 활기

영광 등지 해안에서 잡은 어미 병어를 인공 수정하는 방법으로 20만5천여 마리의 치어를 부화해 이 가운데 7.3%인 1만5천 마리의 병어 양식에 성공했다. 목포 수산사무소는 최근 3년간의 시험 사업을 결산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생산된 치어 1만2천마리(4~8.2cm)를 전남 서해안 연안에 방류했다.

이나 최근 급격히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양식이 본격화될 경우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병어의 국내 어획량은 1975년에 2만4천191t에 달했으나 2003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구역이 축소돼 최근에는 7천496t으로 줄었으며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목포해양수산청 영광사무소도 올해 인공부화한 참조기 종묘 양식에 성공했다. 영광사무소는 2003년부터 조기 양식에 착수해 최근 종묘 부화에 성공했으며 치어가 5~10cm까지 자라던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신안군 장산면 한 어민이 낙지 인공부화에 성공했으며, 국립 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생선 중 하나인 고등어를 대량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항복 수산사무소장은 "양식 어종의 다변화는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자 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우리도 도서관이 생겼어요" 진도 지산초교 '아이누리 도서관' 개관



진도 지산면 지산초등학교에 최근 '아이누리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순수 우리말로 이름 지어진 아이누리 도서관은 6천700여권의 장서와 멀티미디어실,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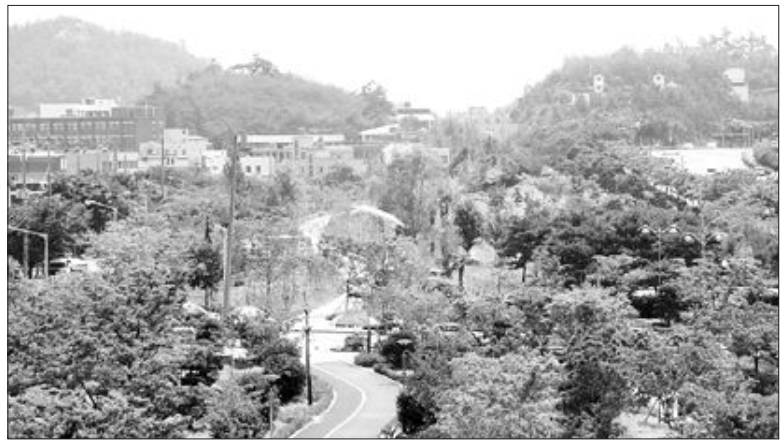
'속 빈 강정'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경실련 "洞 단위 여론 수렴 부족" 조례 개정 청원

목포시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목포경실련은 지난 24일 '목포시 주민참여 운영조례' 개정 청원서를 목포시의회에 냈다. 경실련은 개정 청원서에서 "목포시 현행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조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조례 개정 청원서에서 예

산심의 대상을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총회나 공청회를 열어 동 단위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예산감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예산학교 등을 개최, 주민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조례 개정 청원에 앞서 지난달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남지역의 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또 조례 개정을 바라는 1천여 명의 시민서명도 받아 청원서에 함께 제출했다. 현재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폐선 부지, 웰빙공간으로 탈바꿈
목포 도심에 관통했던 철도 폐선부지가 웰빙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청호와 동목포, 송림·이로 구간(2.8km)에 조성된 웰빙공원이 지난 21일 준공됐다. 목포시는 오는 2012년까지 폐선부지 5.4km에 나무 34만주를 심어 공원 숲을 조성하고, 보행·자전거도로, 웰빙체육 공간, 야외음악당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채무액 17건 887억원"

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3년간 부채 517억 상환

목포시 채무액이 9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가 시의회 전경선·성혜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채무는 6개 분야 17건에 886억7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경찰서~터미널 간 도로개설(2건) 관련 400억 원과 옥암지구 택지조성(2건) 관련 채무 450억 원 등 4건의 채무가 850억 원에 달해 전체 채무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국도 1호선 대체 우회

도로개설 관련 12억7천500만원, 국도 2호선 연결 도로개설로 인해 19억5천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3년간 원금과 이자 등 500억원대의 채무를 상환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원금 397억과 이자 46억5천만 원 등 444억 원, 지난해에는 원금 11억1천만 원에 이자 36억9천만 원 등 47억 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시는 올해도 8억2천500만 원과 이자 17억1천900만 원 등 모두 25억4천400만 원을 갚는 등 지난 3년간 517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공무원이 '도둑전기 잡는 하마' 특허

목포시 하수과 고진찬씨
'전원 제어 시스템' 개발

목포시 공무원이 개발한 전원 제어 시스템이 특허를 따냈다. 목포시는 무인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원 제어 시스템이 지난 20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 향후 20년간 특허권을 갖게 돼 특허료 수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일명 '도둑전기 잡는 하마'로 불리는 전원 제어 시스템은 직원 퇴근 이후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대기전력'으로 일정한 전기가 소모되는 것을 막고 누전이나 전원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게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기술 개발로 연간 2천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술은 목포시청 하수과에 근무하는 고진찬(사진)씨가 개발한 것으로 고씨는 보상으로 1천만 원을 받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대서 27일 "2008 캡스톤 디자인 엑스포"

'서남권 산학협력' 양해각서도

27일 목포대에서 공대생들의 창의적 설계 능력과 시스템 통합능력 배양을 위한 '2008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엑스포'가 열린다. 이번 엑스포에는 목포대 공과대학에서 추천한 58개 우수 작품이 전시된다. 또 창의공학 설계 경진대회, 공과대학 교수의 설계 교육 강화를 위한

'서남권 산학협력' 워크숍과 서남권 산학협력 구축 프로젝트(Recap) 양해각서 교환식도 열린다. 캡스톤 디자인은 창의성과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설계과목이다. 디자인 엑스포는 공학교육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단이 후원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국내산 둔갑 수입 천일염 꼼짝 마!

전남도, 내달부터 1년간 불법유통 집중 단속

전남도가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1년간을 천일염 불법유통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세관, 영업조합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2개조 10명으로 구성돼 수입 천일염이 수입통관을 거쳐 도매상으로 전달되면서 국내산으로 바뀌는 과정, 포대제작업체에서 도매상이나 소매상으로 포대가 건네지는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수입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바꾸는 '포대갈이' 행위, 수입 천일염의 불법유통 원인이 되는 포대를 도매상에 제공하거나 포대제작을 허용하는 행위, 수입과 국내산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

거나 원산지 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경우, 국내산 천일염을 공업용 염류로 구입해 식용 천일염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도 집중 단속된다. 전남도는 수입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인 소금에 대해서는 포대에 표시된 생산자의 판매단계(생산자 대조확인)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당 업

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상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동호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8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상설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천일염 유통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해 천일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중기자 chae@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It lists phone numbers for various services and departments across different regions.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properties, land, and servic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real estate agencies and services.